
조일죽 작가의 한국서 첫 개인전 '부처님과 함께 여행하다–삶은 곧 걷는 것' 개막식에 앞서 3월 9일 불일미술관에서 조 작가를 만났다.

# 불보살 가피로 맺은 인연, 화폭에…

## 불일미술관, 대만 출신 조일죽 작가 개인전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불보살님이 이끌어주셔서 만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삶 자체가 부처님과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한국 등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펼친 대만 출신의 조일죽 작가가 한국서 첫 개인전을 연다. 3월 19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 1관서 열리는 이번 전시 '부처님과 함께 여행하다-삶은 곧 걷는 것'에서 조 작가는 일본 시고쿠헨로 순례길을 걸으며 작업한 작품 15점, 한국서 만난 길상사 및 법련사 청년회 법우들 초상화 34점, 대만서 활동한 화집 등을 소개한다.

작품들엔 조 작가의 수행 여정,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아름답고도 귀한 인연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때론 목탄을, 때론 잉크를, 여의치 않으면 볼펜을 잡고 앉아 그려내지만 인물 또는 풍경을 표현해내는 조 작가의 섬세한 화풍은 변함이 없다.

조 작가가 여행하며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인도여행 때부터다. 두 번째 날 카메라가 망가져서 스케치로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무수한 감정들을 담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고.

특히 2014년 일본에 한 달 간 머물며 시고쿠헨로를 걸었던 일은 조 작가의 작품 활동은 물론, 삶 전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시고쿠헨로(四國遍路)는 당나라 때 유명한 승려였던 공해대사가 수행했던 길로, 해안선을 따라 시고쿠지역을 1바퀴 돌며 88개 사원에 참배하는 순례길이다.

"몸은 걷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 망상들이 떠올랐어요. 단순히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고, 자연스레 작품에도 반영됐습니다. 순례 초창기 그린 작품은 많은 것을 담으려는 욕심 탓에 더 구체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거둬내고 마음 속 평온함을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시고쿠헨로 순례 중 20번째 사찰 학림사서 그린 작품. '학림사로 가는 길에서 보살을 만나다'

### 3월 19일까지 한국서 첫 개인전
### 대만–일본–한국서 만난 불법 인연
### 초상 · 풍경화로 표현해 50여점 전시
### 길상사 · 법련사 청년회 법우 '큰 도움'

일본에서 그린 작품 중에서도 조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20번째 사찰 방문 당시 그린 '학림사로 가는 길에서 보살을 만나다'다. 그 작품을 그릴 때 마음이 가장 편안했기 때문이다. 절로 이르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려 바위에 걸터앉았는데, 눈앞에 보살상을 보니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순간 조 작가는 '언제나 보살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느꼈다고 한다.

부처님과 조 작가의 여행은 일본에서 그치지 않았다. 고국으로 돌아간 후 1년 간 한국어를 공부한 조 작가는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조 작가를 기쁘게 한 일은 길상사 청년회와 법련사 청년회 법우들을 만난 것이다.

"대만과 달리 한국 청년 불자들 간엔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대만은 청년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한국보다 다채롭긴 하지만, 도반들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길상사와 법련사 법우들을 만난 것이 제겐 더없는 행복이었죠. 대화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불제자'란 사실만으로도 동질감이 들었어요."

이번 전시도 법우들의 도움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 한국어가 서툰 조 작가를 위해 법우들이 전시 준비 동안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이에 조 작가는 길상사와 법련사 법우들의 초상화도 함께 그려 전시하고, 전시회가 끝난 후엔 초상화 작품들을 전부 법우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불일미술관 학예실장 구담 스님은 "작가는 불교를 믿음으로 한국 · 대만 · 일본 3개국에서 불교 법우들과 인연으로 창작열을 불태우고, 그림을 통한 인간미까지 전하고 있다. 길상사와 법련사 청년회 도반들이 응원하고 축하하는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청년 조일죽 작가에게 영원히 아로새길 귀한 법연이 아닐까 싶다"고 소개했다.

한편 조일죽 작가는 2010년 타이베이예술대학 미대를 졸업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대만 타이중과 가오슝에서 개인전 '착한 소원'을, 2016년 대만 타이난에서 개인전 '무심' 등을 연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국립박물관서 문화체험으로 유익하게!

## 공주 · 부여박물관, 어린이 또는 가족 주말 프로그램 개설

전국 국립박물관서 주말마다 진행하는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어린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제8기 어린이공주박물관학교'를 개설한다.

'문화재로 만나는 옛 조상들의 생활'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교과서 속 문화재 연계 강의 · 체험 · 답사 등을 실시한다. 4월 1일~11월 11일 격주 토요일마다 총 16회 운영된다.

세부일정은 △4월 29일 도구의 발달-청동거울 만들기 △5월 13일 먹거리의 생산-농사도구의 발달 △6월 10일 우리 그릇-빗살무늬토기 빗기 △7월 15일 조상들의 과학발명품-나도 발명가 △9월 2일 불교문화재 이야기-석탑 쌓기 등이다.

접수는 박물관 홈페이지(gongju.museum.go.kr)서 접수 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amj93@ korea.kr) 또는 팩스(041-850-6360)로 3월 13~27일 송부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이며, 공주어린이박물관학교 기 참가자는 제외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041)850-6365

**국립부여박물관**은 주말 가족 프로그램 '토요일은 박물관이 좋아!'도 운영한다. 이는 초등학생 동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11월 4일까지 매달 첫째 · 셋째 · 다섯째 주 토요일 △백제 금동대향로 강의 및 입체 향로 만들기 '신비로운 향로 속 세상' △정림사 5층 석탑 강의와 장신구 만들기 '오층석탑, 색을 입다' △백제8무늬 벽돌에 대한 강의와 탑본 부채 만들기 '부채에 담긴 백제무늬' 총 4개 주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일정은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나, 매회 선착순 25가족만 가능하다. (041)830-8439

박아름 기자

# 신라 왕경 경주서 만나는 백제 문화

## 국립경주박물관서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

신라 왕경이었던 경주서 백제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첫 전시가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서는 정림사 출토 소조불 및 대당평제비탁본, 미륵사지 서석탑 출토 사리병 및 사리봉 영기 등 백제 불교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불교유물도 다수 소개돼 눈길을 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과 백제세계유산센터(이사장 남궁영)는 3월 7일~5월 7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공주와 부여, 익산 3지구를 중심으로 8개 세부 지구로 다시 나누어 도시 특성과 경관에 맞춰 유물들을 조명한다. 특히 신라 왕경서 열리는 첫 백제 관련 전시인 만큼 신라 문물과의 비교적 시점도 관람객들에게 이채로운 재미


미륵사지 출토 금제사리내호와 금동제사리외호.

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여 출토 대형 치미와 광배 등 약 800점 유물이 전시된다. 또한 공주 · 부여 · 익산 지역의 8개 유적을 드론으로 촬영한 대형 영상을 비롯해 백제금동대향로, 서동요 등 5개 영상이 함께 공개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054)740-7535

박아름 기자

# 월정사성보박물관, 민화강습 개강

월정사성보박물관이 2017 문화대학 민화연구반 강의를 시작한다. 민화연구반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민화강습을 진행한다.

상반기(3~6월)와 하반기(9~11월)에 걸쳐 매주 일요일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회원들이 그린 작품들을 모아 8월 오대산문화축전 동안 전시회도 연다.

3월 12일 오후 1시 월정사성보박물관 교육실서 개강하며, 상시 모집한다. (033)339-7000

박아름 기자

